

## 中國의 初期 織金 研究

崔圭順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Forepart Recordation of a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in China

Kyu-Soon Choi

Lecture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7. 2. 7 투고)

#### ABSTRACT

Some study has showed that the origin of a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in China was from Wei(魏) dynasty. The earliest, what we can see now, of a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is the thing of Tang(唐) dynasty in China. So, until it has a new archaeological discovering, the study of the origin of it can but use literature records.

This study compared with several records before Sui(隋) dynasty. It showed that the beginning of a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in China was not from Wei dynasty but from Jin(晋) dynast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 purse of the official had been weaving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 from Northern Qi(北齊) dynasty to Sui dynasty. These records are very important for studying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 in China.

Key words: a woven with supplementary golden wefts(織金), fabrics(織物), the purse of the official(鞶囊), costume(服飾), China(中國)

## I. 머리말

고대의 복식은 禮儀·制度和 工藝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의·제도는 복식으로 형상화되는 예의와 등급·준비 구별 등의 문화 상징 작용을 말함이고, 공예는 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織造부터 裁縫까지의 전 과정과 이에 추가되는 장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그 중에서 織金은 주로 후자에 속하여 중국 고대의 방직 생산과 장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황금으로 옷을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초기에는 泥金과 金箔 기술 위주였던 것이 나중에는 직금 위주가 된다. 직금은 織金錦이라고도 하며, 金線을 織入하여 무늬를 드러내는 방직품이다. 泥金·金箔으로부터 점차 직금 위주로 변하는 이 과정은 복식사에서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고, 초기의 직금 기록에 관한 고찰은 이 과정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하겠다.

중국 직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晉代의 『鄴中記』에 있는 '金縷織成合歡帽'·'金縷合歡袴'이다. 또 隋開皇(581~604年)때의 何稠가 직조한 '金線[線]錦袍'에 대한 기록이 그 뒤를 잇는다. 유물로는 唐代의 직금이 출토되어 당시의 사용을 입증하고 있으나, 그 이전 시기의 유물은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기의 직금 연구는 새로운 고고학 자료가 발굴되기 전까지 문헌 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晉에서 隋까지의 문헌기록 중 직금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고, 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목받지 못한 자료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魏晉南北朝 시기와 隋代의 문헌 기록을 상세히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중국의 초기 직금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최초의 직금 기록이 나타나는 晉 이전의 상황을 간단히 점검한다. 즉 당시의 金絲 사용이 직금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와, '錦'과 직금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둘째, 직금과 관련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史料에 대한 재검토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료

의 검증이 포함되는데, 그 중 『업중기』의 기록은 그 내용이 명확히 직금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고찰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魏文帝詔文 중의 내용을 직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고, 또 하조가 직조한 '金線[線]錦袍'에 대해서는 같은 사실을 기록한 관련 문헌의 기재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 문헌학 중의 校勘學 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晉에서 隋까지의 기록 중 직금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나 아직 자료로서 주목받지 못한 繫囊에 대해 고찰하여, 당시 반낭 재료를 직조할 때 직금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 II. 晉 이전의 金絲 및 錦

### 1. 金絲

직금은 먼저 금사를 가공하는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대 중국에서 금을 가공하고 사용한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周原(岐山縣)과 山東 臨淄 지역의 유물 중 각각 商과 東周의 금박과 금사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금사가 복식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後漢書』 『禮儀志』의 '金縷玉柙'<sup>2)</sup>에서이다. 縷는 '울'을 의미하므로 '금루옥합'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금사가 사용되었음이 파악되는데, 그 주석에 『漢舊儀』를 인용하여 "玉으로 저고리[襦]를 만드는데 형태는 갑옷[鎧]과 같고, 이를 꿰매어 잇는 데는 황금실로 한다. 허리아래는 옥으로 얇은 조각을 만드는데 길이 1尺에 (너비)2寸 半으로 하여 통[柙]을 만들며 길이는 발에 이르는데 역시 황금실로 꿰맨다"<sup>3)</sup>라 하여 금사를 사용하였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되는 유물로 1960년대 말 滿城 지역의 西漢시기 劉勝 부부 묘에서 금루옥합 두 벌이 발굴되었다. 역사적으로 후대에 직금에 사용된 금사는 주로 片金과 撚金이었는데,<sup>4)</sup> 片金錦에 드러나는 금사는 금박을 얇은 가죽이나 종이 위에 붙인 후 다시 아주 좁고 긴 가닥으로 자른 것이고,<sup>5)</sup> 撚金錦에 드러나는 금사는 片金線을 絹絲에

같은 것이다. 이에 비해 현대의 금루옥합에 사용된 '金縷[縷金]'는 후대의 금사와 달리 뒤에 아무런 보조물도 대지 않고 단순히 금으로만 만든 것이 유물을 통해 파악되었다. 또 그 역할은 직물에 직입되어 짜인 것이 아니라 玉 조각을 꿰매어서 고정시켰을 뿐이었다.

## 2. 錦

금과 직물을 함께 언급한 기록은 漢 劉熙의 『釋名』 『釋衣服』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즉 “錦은 금이다. 그것을 만드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 그 값이 금과 같다. 이 때문에 그 글자를 만드는데 帛과 金을 따랐다”<sup>6)</sup>라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지 錦의 가격이 금과 같이 비쌌을 형용하기 위함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직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쥘 이전의 金絲 및 錦 관련 문헌과 유물로는 당시에 '金縷'를 방직 원료로 직물에 직입하는 기술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 Ⅲ. 초기 織金 史料의 재검토

### 1. 魏 文帝 詔文 중의 織金

魏 文帝 曹조는 당시의 견직물을 비평하는 내용의 詔文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중 직금과 관련하여 고찰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조문은 宋의 李昉 등이 쓴 『太平御覽』 『布帛部』의 '錦'條에서 처음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魏 文帝가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잇달아 蜀錦을 얻었는데 아주 좋지 않아 늘릴 정도여서 鮮卑(조차)도 다시 좋아하지 않았었다. 우리가 직조한 如意虎頭連璧錦에는 金薄蜀薄도 있어 洛邑에서 오는데 모두 질이 나빠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모두 虛名임을 알겠다'고 하였다.”<sup>7)</sup>

또 중국에서 직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沈從文의 『織金錦』인데, 그는 이 글에서 문제의 조문을 인용하여 중국의 직금 공예 탄생의 상한 연대

는 三國時期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張澍가 『蜀典』에서 魏 文帝 曹조가 『典論』에서 三國시기의 견직물을 비평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金薄蜀薄이 아름답지 않아 鮮卑도 받지 않았다. 如意虎頭連璧錦이 洛邑에서 오는데 모두 질이 나빠 이름뿐임을 알겠다'라 하였다. 본문의 뜻을 번역해 보면 四川의 蜀 땅에서 직조한 金錦과 彩錦을 鮮卑 民族에게 보냈어도 환영 받지 못할 정도로 洛陽의 유명한 생산품의 품질이 결코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sup>8)</sup>

위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중문은 조비가 말한 '金薄蜀薄'의 '金薄'을 '金錦'이라 하여 직금으로 해석하였다. 심중문의 위 인용문 및 이러한 견해는 그 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 직금에 관한 많은 문장에서 이 기록을 언급할 때면 대부분 심중문과 같은 위 인용문을 사용함과 함께 역시 같은 견해를 제기하였다.<sup>9)</sup>

그러나 위의 내용은 자료 인용의 정확성과, '金薄蜀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문제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료의 정확성에 있어 심중문이 인용한 문헌은 原文과 같지 않았다. 淸 張澍이 쓴 『蜀典』 『器物類』의 '蜀錦'條에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魏 文帝가 조칙을 내리기를 '잇달아 蜀錦을 얻었는데 아주 좋지 않아 늘릴 정도여서 鮮卑(조차)도 다시 받지 않았다. 吳 지역에서 직조한 如意虎頭連璧錦은 洛邑에서 오는데 역시 모두 질이 나빠 아래 물건에 해당하여 모두 虛名임을 알겠다'라 하였다.”<sup>10)</sup>

앞서 인용한 『태평어람』을 통해 문제의 조문에 金薄蜀薄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글에서 보듯 『촉전』에서는 이 말을 누락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태평어람』과 『촉전』에 의하면 鮮卑 조차도 환영하지 않은 것은 심중문이 말한 金薄蜀薄이 아니라 蜀錦이었다. 따라서 심중문의 경우처럼 金薄蜀薄을 누락한 『촉전』에 있는 문제의 조문을 근거로 중국 직금을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기며, 또 해당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원문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논할 것은 문제 조문 중의 金薄蜀薄을 심중문의 견해처럼 과연 金錦과 彩錦으로 이해해도 무방한가의 문제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薄”字는 *báo*가 아닌 *bó*로 읽을 경우 “箔 *bó*”과 통하여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이러한 글자를 通假字라 함). 이 때문에 金薄과 金箔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방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金箔과 직금은 비록 상관관계에 있기는 하나,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기술이다. 즉 금박은 황금을 두드려 얇게 만든 것이고, 직금은 금사를 직입하여 무늬를 드러낸 직물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兩者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밀하지 못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어람』 중의 문제 조문은 ‘錦’에 관한 기록 중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金薄蜀薄은 織錦의 재료가 된다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錦 위에 금박을 찍는 것은 볼 수 없는 현상이므로 織錦 재료 중의 금박은 금사를 직입하여 짠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金薄蜀薄은 蜀 땅에서 생산한 금박을 금사의 재료로 사용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문제 조문 중의 “亦有金簿蜀簿”은 錦 중에서 蜀 땅에서 생산한 금박을 재료로 한 것도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문제 조문 중의 직금 관련 내용에 대해 필자는 그 앞뒤 문맥의 이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분석하였으나, 해당 기록은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또 다른 보충 사료도 없어, 이 기록을 중국 초기 직금 공예의 상한 연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보충 문헌자료가 나타나거나 유물의 출토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 2. 晉 陸翹 『鄴中記』 중의 織金

中原 지역의 문헌 중 최초의 직금 기록은 晉 陸翹가 『鄴中記』에서 “季龍이 사냥을 하는데 金縷織成合歡帽을 썼다. 石虎 때 金縷合歡袴를 입었다”라

한 것이다. 또 『四庫全書』에서는 『太平寰宇記』를 인용하여 “石虎가 사냥을 할 때 마다 金線織成合歡袴를 입었다”<sup>11)</sup>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 내용 중의 금루직성합환모와 금루합환고[금선직성합환고] 등은 금사로 직성한 合歡帽과 금사로 짠[직성한] 合歡袴를 의미하므로, 이들을 직금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sup>12)</sup>

## 3. 隋 何稠가 織造한 織金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隋 開皇 연간에 페르시아가 바친 직금 袍에 관한 것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개황 연간에 페르시아는 隋 文帝에게 직금 袍를 바쳤고, 그 후 황제의 명령에 따라 ‘널리 옛 그림을 보고 옛 물건에 대해 많이 아는’ 하조가 이를 모방해 제조하였다.<sup>13)</sup> 한편, 당시의 사실을 기록한 여러 문헌의 기재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또 이를 근거로 이때의 사실이 직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관련 사료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원인과 함께, 서로 다른 기록 중 어느 것이 합당한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실을 기록한 문헌으로 대표적인 것은 『北史』와 『隋書』이다. 그러나 『북사』 「何稠傳」에서는 ‘金線錦袍’, 『수서』 「하조전」에서는 ‘金綿錦袍’라 하여 ‘金線’과 ‘金綿’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趙評春 등은 『수서』의 기록에 토대하여 隋代에 페르시아가 바친 것은 본래 ‘金綿錦袍’로 직물에 금을 직입하는 공예와는 관계가 없다 하였다.<sup>14)</sup> 그러나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通志』 「隋何稠傳」 및 『冊府元龜』 「總錄部」에서 모두 ‘金線[線]錦袍’라 하였고, 또 같은 시기 페르시아와 관련한 다른 문헌에서도 모두 ‘金線[線]錦袍’라 하고 있어서,<sup>15)</sup> 『수서』의 ‘金綿(縣)錦袍’는 하나의 예외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수서』의 기록에 근거하여 隋代에 아직 직금 기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역대 직물 관련 기록에서 ‘金綿(縣)錦袍’라는 명칭은 없음에 비해, ‘金線[線]錦袍’는 비교적 안정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이다.

한편 글자를 보면 '線'과 '綿(縣)'은 모두 '糸'를 부수로 하여 하나는 그 옆에 泉을, 다른 하나는 帛을 쓴다는 것이 다를 뿐 모양이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校勘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태가 비슷하여 잘못 표기된 경우[形似而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魏文帝 詔文 중의 '金簿蜀簿'은 錦에 표현한 것이므로 금박보다는 직금일 가능성이 크나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충분치 않고, 또 심종문이 인용한 내용은 사료 인용의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하조가 직조한 袍는 『北史』 등의 '金線[線]錦袍'가 합당한 기록으로 이는 직금 관련 사료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IV. 鞶囊 制度 중의 織金

##### 1. 鞶囊

鞶囊은 鞶과 囊의 두 독립된 단어가 합쳐진 낱말이다. 鞶의 본래 뜻은 띠[帶]이고, 이 鞶에 매는 주머니가 바로 鞶囊이다. 그러나 鞶囊은 때로 간단히 鞶이라 줄여 쓰기도 한다. 따라서 鞶은 띠와 주머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전체를 의미하면서, 때로는 이들 각 부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鞶囊은 관복을 입을 때 주로 綬帶를 넣는 역할을 하므로 綬囊이라 하기도 하고,<sup>16)</sup> 또 허리에 잘 때 옆 부분에 차기 때문에 傍囊이라고도 한다<sup>17)</sup>(그림 1 참조).

秦漢을 전후하여 璽印을 묶어 매는 역할을 하던 綬의 제도가 완성되고, 漢代에 그 구성요소·길이·색·밑도 등으로 서로 다른 신분을 구별하기 시작한 이후<sup>18)</sup> 綬를 넣는 囊 역시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다. 또 조정에서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 印·綬·囊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즉 『晉書』 「輿服志」에 “모든 印과 綬를 주었으나(諸假印·綬) 官이 반당을 주지 않은 자는 스스로 (반당을) 만들어 구비해야 한다. 단 印을 주었으나 綬를 주지

않은 자는 綬를 차 수 없다”<sup>19)</sup>라 하였다. 여기의 “假”는 授予의 뜻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분석하면 관원에게 印綬 일습을 내릴 때 상응하는 등급에 따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장 높은 등급의 관원은 印·綬·囊을 모두 官에서 받아 착용하였다. 둘째, 그 다음 등급의 관원은 印과 綬를 받고, 囊은 받지 못했으나, 스스로 준비하여 착용하는 것은 허락되었다. 셋째, 가장 아래 등급의 관원은 印만을 받고 綬帶를 차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綬帶가 없으면 당연히 囊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정에서 관원들에게 印綬 일습을 내려주는 것은 세 가지 상황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습을 모두 차 수 있는 관원과, 단지 印만을 차는 관원의 두 종류로 나뉘어졌다.

隋代에 이르면 관원들은 몸에 印을 차지 않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綬와 반당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즉 『隋書』 「禮儀志」에서는 반당에 대해 “지금 비록 印을 차지 않으나 여전히 옛 제도를 남겨 佩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그것(반당)을 차야 하고 (있으면서도) 차지 않으면 안된다”<sup>20)</sup>라 하였다. 이때의 綬는 秦漢 때처럼 印을 묶어매기 위하여 옆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식화하여 뒤허리에 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綬를 차 수 있는 신분의 관원은 이와 별도로 반당을 차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복식제도에 여전히 반당에 대한 규정이 나타난다.

##### 2. 魏晉南北朝~隋의 鞶囊 制度

魏晉南北朝에서 隋까지의 반당에 관한 제도는 중국의 초기 직금 직조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隋代에 제정된 반당제도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제도를 잇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의 비교를 통해 北齊 때 직금으로 반당을 직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隋 高祖는 건국 직후 周(北周)의 제도를 개혁하였는데<sup>21)</sup> 그 중 冠服제도의 개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때의 제도 중 직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 황태자 이하의 반당 제도가 있다. 즉 황태자의 公服에 金縷鞶囊, 百官의 公服[從省服]

에 “繫囊”이 있고, 이와 별도로 “繫囊, 2품 이상은 금실[金縷], 3품은 금은실[金銀縷], 4품 및 開國男은 은실[銀縷], 5품은 채색실[彩縷]”<sup>22)</sup>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원이 허리에 차는 반낭에 금실·금은실·은실·채색실 등의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초기 직금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위 반낭 제도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가 구체적으로 언제 반포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서』 『高祖本紀』에 의하면 개황 원년(581년) 6월 癸未에 처음 天命을 받았음을 고지하면서 隋가 火의 기운을 받았으므로 비록 천지와 종묘에 대한 제사의 의례는 冕服을 입는 형식에 따르나, 그 옷은 朝服(通天冠·絳紗袍)을 입어 되도록 적색을 입도록 하였고,<sup>23)</sup> 戎服만 황색을 입도록 하였다.<sup>24)</sup> 여기에서는 색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수서』 『禮儀志』에서는 당시의 제도를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그 첫머리에 “이에 명을 내려 東齊의 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니……”<sup>25)</sup>라 하였다. 바로 이 제도 안에 위에서 인용한 반낭 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뒤이어 바로 煬帝 大業 원년(605년)의 제도가 나온다.<sup>26)</sup> 따라서 위의 반낭 제도를 개황 원년에 반포된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제도 중의 ‘金縷繫囊’ 등이 자수를 한 것인지 혹은 직조를 한 것인지의 문제, 즉 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헌에서는 반낭[綬囊]을 말할 때 보통 ‘虎頭繫囊’·‘獸頭繫囊’처럼 ‘虎頭’ 혹은 ‘獸頭’ 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이들 虎頭나 獸頭는 주머니 위에 표현한 무늬를 말하는데, 이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刺繡로 한다는 것과 그림으로 한다는 것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周錫保는 “囊은 虎頭 무늬를 수놓으므로 虎頭綬囊이라 부르기도 한다”<sup>27)</sup>라 하여 자수하는 것으로 보았고, 심종문은 “綬를 넣는 것으로 綬囊이 있는데 평소에 허리에 차며, 皮革으로 만든 것은 반낭이라 한다. 虎頭 모양을 그린 것은 虎頭綬囊이라 한다”<sup>28)</sup>라 하여 그리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관련 문헌에서 아직 반낭과 관련하여 虎

頭나 獸頭를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 刺繡의 방법은 『태평어람』에서 班固의 『輿竇將軍箋』을 인용하여 ‘虎頭繫囊’<sup>29)</sup>이라 하였고, 따라서 이 시기의 반낭에 虎頭와 獸頭 무늬를 자수의 방법으로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開皇 元년에 제정된 반낭 제도 역시 무늬를 자수로 표현함을 말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는데, 그 전후 시기의 관련 기록을 상세히 비교 분석한 결과 자수가 아닌 직금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개황 원년에 제정된 제도는 “東齊의 법을 채용한(採用東齊之法)” 것이었고, 동제의 법이라 하면 北齊의 제도를 말함이다. 북제의 반낭 제도는 武成帝 河清(562~564년) 연간에 제정되었는데 “2품 이상은 금실[金縷], 3품은 금은실[金銀縷], 4품은 은실[銀縷], 5·6품은 채색실[彩縷]이고, 7·8·9품은 채색실[彩縷]에 獸爪囊이다”<sup>30)</sup>라 하여, 주요 내용에 있어 개황 원년의 제도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表 1>참조).

또 개황 이후인 대업 원년에 여러 신분의 반낭 제도를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황태자·백관·부녀의 반낭에서 처음으로 직금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즉 황태자의 從省服에서 金縷繫囊<sup>31)</sup>을 규정하였다. 또 백관의 복식에서는 “(반낭) 지금 梁·陳·東齊의 제도를 채용하여<sup>32)</sup> 품이 높은 자는 金으로 織成하고 2품 이상에서 그것을 사용한다. 다음(등급)은 銀으로 직성하고 3품 이상이 그것을 사용한다. 아래(등급)는 실[縲]로 직성하고 5품 이상이 그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삼등으로 나눈다”<sup>33)</sup>라 하여 세 등급의 반낭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녀의 반낭에 대해서는 三妃(貴妃·德妃·淑妃)는 金縷織成 獸頭繫囊, 九嬪(順儀·順容·順華·修儀·修容·修華·充儀·充容·充華)은 金縷織成 獸頭繫囊, 婕妤는 銀縷織成 獸頭繫囊, 美人·才人是 彩縷織成 獸爪繫囊이라 하였다.<sup>34)</sup> 그 이하의 신분은 단지 獸頭繫囊이나 獸爪繫囊이라고만 하였고 金縷 혹은 銀縷 등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金縷織成을 명확히 표기한 것 외에, “지금 梁·陳·東齊의 제도를 채용하여(今采梁·陳·東齊

制)”라는 구절에 이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금으로 직성 (以金織成)”한다는 등의 직조 방법인 것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前代의 직조 방법을 연속한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위에서 인용한 북제의 제도와 개황 원년의 제도에서 단지 ‘金縷’ 등 이라고만 하고 직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이 제도들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대업 원년의 제도에서 명확히 직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제도 역시 직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이상으로 보면 개황 원년 반낭 제도 중의 金縷·銀縷 등은 자수가 아니라 직금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은 隋의 제도에 대한 『舊唐書』 『輿服志』의 기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즉 『舊唐書』에 隋의 반낭 제도에 대해 “반낭, 2품 이상 金縷, 3품 이상 銀縷, 5품 이상 彩縷”<sup>35)</sup>라 한 것이다. 앞서 위진남북조에서 隋에 이르는 관련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반낭에서의 ‘金縷’가 직금을 나타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당서』는 표기에 있어 하청 연간 및 개황 원년 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지 ‘金縷’라고만 하여, 이 낱말로 직금을 대신하는 표현 방법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반낭에서 ‘金縷’라 하는 것은 고대인의 언어 습관으로, 그 안에는 직금의 직조방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반낭 제도 표현법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縷→以金織成·金縷織成→金縷  
 金銀縷或銀縷→以銀織成·銀縷織成→銀縷  
 彩縷→以縵織成·彩縷織成→彩縷

이로써, 중국에서 北齊 이후 隋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직금으로 관원의 반낭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제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織成은 의복이나 장식이 완성되었을 때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직조한 각종 방직품의 총칭으로,<sup>36)</sup> 바다 조직이나 품종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견직물 중 紗·羅·綾·錦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직성으로 옷을 만들 때는 크기를 잘 필요가 없이 단지 있는 모양대로 재단하여 꿰매기만 하면 완성품이 된다.<sup>37)</sup>

직성 직물은 사용한 실이나 무늬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반낭을 잘 때, 금실을 사용하였다면 ‘金縷織成’, 반낭의 모양대로 직성하면서 금실을 사용하였다면 ‘金縷織成鞞囊’, 獸頭 무늬를 넣었다면 ‘金縷織成獸頭鞞囊’이 되는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晉 陸翽의 『鄴中記』에

<表 1> 北齊~隋의 鞞囊 制度

時期		身分 및 鞞囊					
		皇太子	百官 및 后妃				
北齊	河清(562~564)		二品已上 金縷鞞囊	三品 金銀縷鞞囊	四品 銀縷鞞囊	五~九品 彩縷鞞囊	
隋	開皇元年(581)	采東齊(北齊)制	金縷	二品已上 金縷鞞囊	三品 金銀縷鞞囊	四品及開國男 銀縷鞞囊	五品 彩縷鞞囊
	大業元年(605)	采梁·陳·東齊制	金縷	二品以上: 以金織成	三品已上: 以銀織成		五品已上: 以縵(線)織成
				貴妃·德妃·淑妃(三妃), 順儀·順容·順華·修儀·修容·修華· 充儀·充容·充華(九嬪): 金縷織成獸頭鞞囊	婕妤: 銀縷織成獸頭鞞囊		美人·才人: 彩縷織成獸爪鞞囊
	『舊唐書』輿服志			二品以上 金縷鞞囊	三品以上 銀縷鞞囊		五品以上 彩縷鞞囊

근거하여 중국의 직금 공예가 晉代에 이미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張澍의 『蜀典』에 있는 내용은 직금과 관련된 부분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직금 사료로 인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또 이를 인용하여 심중분이 『織金錦』에서 三國 시기에 이미 직금이 있었다고 본 견해는 합리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헌 중 반당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은 명확한 직금의 사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 北齊 이후 隋에 이르는 일정 기간 동안 직금으로 반당을 제조하였다.

이 밖에 隋 開皇 元年과 大業 元年의 반당 제도에 영향을 준 北齊의 제도는 사실상 大業 元年 제도에서 명확히 언급한 '以金織成', '金縷織成'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제도들은 晉代의 직금 관련 기록 이후, 何稠가 金縷錦袍를 직조했다는 기록 이전의 중국 직금 직조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이다.



〈그림 1〉 鞞囊을 찬 漢의 武士: 山東 沂南 北塞村<sup>38)</sup>  
漢代人物雕刻藝術. 2001; 中國古輿服論叢 增訂本. 2001.

### 참고문헌

- 1) 中國文物交流中心編(1992). 出土文物三百品. 北京: 新世紀出版社. pp. 41-43.
- 2) "玉匣金縷"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三國시기 魏의 曹丕가 쓴 『營壽陵詔』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喪亂以來 漢氏諸陵無不發掘 至乃燒取玉匣金縷."
- 3) 後漢書 志6 禮儀下 (1962. 北京: 中華書局, p. 3142): "以玉爲襦 如鉞狀 連縫之 以黃金爲縷. 腰以下以玉爲札 長一尺(廣)二寸半 爲押 下至足 亦縫以黃金縷."
- 4)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黑龍江省 阿城 金代 齊國王 墓 출토의 직금에 사용된 금사는 뒤에 보조 물을 대지 않고 단지 금으로만 만든 것이었다. 趙評春·趙善喜(2001). 金代絲織藝術: 古代金錦與絲織專題考釋. 北京: 科學出版社. p. 67.
- 5) 예를 들어 元代 織金 직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納石失(Nasij)은 繡續의 『霏雪錄』과 虞集의 『道園學古錄』에 "가죽 실에 금을 부착하여 무늬를 짠 것 縷皮傳金爲織文"이라 기록되어 있다. (明) 繡續(清初 抄本). 霏雪錄 卷上: "元故事 親王及功臣常侍宴者 別賜冠衣制飾如一 謂之只孫 如玩齋貢公趙廉訪家 傳賜金文只孫一襲是也. 又有縷皮傳金爲織文 謂之納赤思衣 皆國語也.;" 虞集(明 刻本). 道園學古錄 卷24. 碑銘·曹南王勳德碑: "副以納赤思衣等七襲. 納赤思者 縷皮傳金爲織文者也."
- 6) 劉熙. 釋名 卷4. 采帛 (1989. 『爾雅·廣雅·方言·釋名』清疏四種合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 1057): "錦 金也. 作之用功重 其價如金 故其制字從帛與金也."
- 7) 李昉 等. 太平寰覽 卷815. 布帛部2. "錦"條 (1996. 北京: 中華書局(影印本). p. 3622).
- 8) 沈從文(2002). 花花朵朵綉綉罐罐.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p.114: "張澍 『蜀典』引魏文帝曹丕 『典論』, 批評三國時絲織物說: '金薄蜀薄不佳 鮮卑亦不受. 如意虎頭連璧錦 來自洛邑 亦皆下惡 皆有虛名.' 循譯本文的意思 卽川蜀織的金錦和彩錦 送給鮮卑民族 也不受歡迎! 洛陽有名的出產 品質並不高."
- 9) 본고는 2002년에 江蘇美術出版社에서 출판한 심중분의 『花花朵朵綉綉罐罐』에 수록된 「織金錦」을 참고로 하였으나, 해당 논문은 원래 1960년대에 이미 발표된 바 있어 그 후의 연구에서 인용된 사례가 많다.
- 10) 續修四庫全書. 史部 地理類. 蜀典 (浙江圖書館 소장 清道光十四年 張氏安懷堂刻本 影印本): "魏文帝詔: '前後每得蜀錦 殊不善 鮮卑尙復不受也. 吳所織如意虎頭連璧錦 來至洛邑 亦皆下惡 是爲下土之物 皆有虛名.'" 尊經書院 清光緒2年(1876)本과 武威張氏安懷堂 清道光14年(1834)本の 내용 역시 위와 같다.
- 11) 陸翹. 鄴中記 (1986. 文淵閣 四庫全書.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pp. 463-311): "季龍獵 著金縷織成合歡帽. 石虎時 著金縷合歡袴(案 『太平寰宇記』載此條云: '虎每獵 著金縷織成合歡袴.')
- 12) 중국 직금 공예의 기원에 관해 비록 심중분이 「織金錦」(앞의 책, p. 113)에서 "그것(직금)을 동시기에 대량으로 사용한 금은 장식품과 연관 지어 본다면 아마도 전국시기 전후일 수 있다 (如把它和同時期大量用金銀裝飾品物聯繫看, 或在戰國前後)"라는 추측의 말을 하였으나, 이어서 "지금까지 이 시기의 묘에서 전직물에 금을 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還沒有發現過這時期墓葬中絲織物加金的記錄)"라 하여 스스로 전국시대의 직금 사용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접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晉代의 金縷織成合歡帽·金縷合歡袴[金縷織成合歡袴] 등을 중국 직금 공예의 가장 이른 기록으로 볼 수 있겠다.
- 13) 北史 卷90. 何稠傳 (1974. 北京: 中華書局, p. 2985). 隋書 卷68. 何稠傳 (1975. 北京: 中華書局, p. 1596): "(何)稠博覽古圖 多識舊物. 波斯嘗獻金線[線]錦袍 組織殊麗 上命稠爲之. 稠錦既成 逾所獻者 上甚悅."
- 14) 趙評春·趙善喜. 앞의 책, p. 40: "隋代波斯入獻的本爲



- ‘金綿錦袍’，此與中國絲織加工工藝史無涉。”
- 15) 梁書 卷54. 諸夷傳 (1973. 北京: 中華書局, p. 815); 南史 卷79. 夷貊傳下 (1975. 北京: 中華書局, p. 1986): “(波斯國) 婚姻法: 下聘訖 女婿將數十人迎婦 婿著金線錦袍·師子錦袴 戴天冠.”
  - 16) 孫機 (2001). 中國古輿服論叢 增訂本. 文物出版社, pp. 346-347.
  - 17) 晉書 卷25. 輿服志 (1974. 北京: 中華書局, pp. 772-773): “其有囊綬 則以綴於革帶”, “漢世著鞞囊者 側在腰間 或謂之傍囊 或謂之綬囊 然則以紫囊盛綬也. 或盛或散 各有其時.” 여기의 “其有囊綬”에 대해 中華書局 標點本 「晉書」의 校勘記 (위의 책, p.777)에서는 「宋書」 「禮志」5의 “或謂之綬囊” 및 「太平御覽」691 “虎頭綬囊”을 인용하여 “綬는 당연히囊 위에 위치해야 한다”라 하였다. 즉 “其有囊綬”가 아닌 “其有綬囊”이어야 맞는 것이라 보았고,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 18) 後漢書 卷30. 輿服志下 (앞의 책, pp. 3671-3672)에 乘輿(皇帝)에서부터 百石에 이르는 신분의 8 종류의 綬制(黃赤綬 赤綬 綠綬 紫綬 青綬 黑綬 黃綬 青紺綬)가 규정되어 있어 신분에 따라 綬의 제도가 각기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이 綬는 漢代에 신분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綬 제도의 탄생은 漢 이전으로 여겨지나 漢 이전에 이미 漢代처럼 그렇게 엄격한 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중국 綬에 대해서는 초기의 형태 및 역할 등에서부터 후대의 변화과정까지 필자가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박사논문에서도 통합하여 정리한 바 있다. 崔圭順 (2006). 綬에 관한 연구-漢綬를 중심으로. 韓國의 服飾文化史.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pp. 569-604; 崔圭順 (2006). 中國 綬에 관한 연구-漢 이후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服飾, 56(8), pp. 74-82; 崔圭順 (2006). 中國歷代帝王冕服研究. 東華大學校 박사학위논문, pp. 248-268.
  - 19) 晉書 卷25 輿服志 (앞의 책, p. 773): “諸假印·綬而官不給鞞囊者 得自具作 其但假印不假綬者 不得佩綬.”
  - 20)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74): “(鞞囊)今雖不佩印 猶存古制 有佩者 通得佩之. 無佩則不.”
  - 21)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53).
  - 22)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p. 256-259): “鞞囊 二品已上金縷 三品金銀縷 四品及開國男銀縷 五品彩縷.”
  - 23) 冕服은 玄衣纁裳이고 隋代의 朝服은 唐前관에 絳紗袍이다. 역대의 복식제도를 보면 天地에 대한 제사 등 최고 등급의 제례에는 면복이 제정되어 사용되었고, 그 다음 등급으로 조복이 제정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사에서 ‘면복을 입는 禮에 따르나 옷은 조희의 服을 입는다’ 함은, 禮의 진행방식은 면복을 입는 경우의 가장 높은 형식에 따라하되 단 이를 진행할 때의 복식은 면복이 아닌 적색 계열인 조복을 입음을 말하는 것이다.
  - 24) 隋書 卷1. 高祖帝紀 (앞의 책, p. 15): “(開皇元年)六月癸未 詔以初受天命 赤雀降祥 五德相生 赤爲火色 其郊及社廟 依服冕之儀 而朝會之服 旗幟犧牲 盡令尚赤 戎服以黃.”
  - 25)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54): “於是定令 採用東齊之法…….”
  - 26)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62).
  - 27) 周錫保 (2002).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 80: “囊繡以虎頭的紋樣, 則又叫做虎頭綬囊.”
  - 28) 沈從文 (2002). 中國古代服飾研究. 北京: 物質文化史, p. 125: “貯綬有‘綬囊’, 平時佩於腰間, 用皮革作成, 叫‘鞞囊’. 畫虎頭形象叫‘虎頭綬囊’.”
  - 29) 宋 李昉等. 太平御覽 卷815. 布帛部2 (앞의 책, p. 3626).
  - 30) 隋書 卷11. 禮儀志6 (앞의 책, p. 242): “鞞囊 二品以上金縷 三品金銀縷 四品銀縷 五品·六品彩縷 七·八·九品彩縷 獸爪囊.”
  - 31)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69): “(皇太子) 遠遊三梁冠 從省服……金縷鞞囊.”
  - 32) 위 대업 원년 제도에서 동제 외에 梁과 陳의 제도를 채용했다 하였는데 梁의 반낭 제도는 기록에 나타난 것이 없고, 陳의 제도는 단지 ‘獸頭鞞(囊)’과 ‘獸爪鞞’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p. 218-237)이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 두 왕조 역시 金縷·銀縷 등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 33)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 274): “(鞞囊) 今采 梁·陳·東齊制 品極尊者 以金織成 二品以上服之. 次以 銀織成 三品已上服之. 下以縹織成 五品已上服之. 分爲 三等.” “縹”은 yán과 xiàn의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후자는 고대에 “線xiàn”과 같은 의미로 쓸 경우의 발음이다. 따라서 鞞囊 제도에 있어 “以縹織成”과 “彩縷織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4) 隋書 卷12. 禮儀志7 (위의 책, pp. 277-278): “(貴妃·德妃·淑妃 是爲三妃) 金縷織成獸頭鞞囊; (順儀·順容·順華·修儀·修容·修華·充儀·充容·充華 是爲九嬪) 金縷織成獸頭鞞囊; 婕妤 銀縷織成獸頭鞞囊; (美人·才人) 彩縷織成獸爪鞞囊.”
  - 35) 舊唐書 卷45. 輿服志 (1975. 北京: 中華書局, p. 1930): “(隋)鞞囊 二品以上金縷 三品以上銀縷 五品以上彩縷.”
  - 36) 陳娟娟 (1979). 絳絲. 故宮博物院院刊, 第3期, p. 23.
  - 37) 尙剛 (1998). 唐代工藝美術史. 杭州: 浙江文藝出版社, pp. 48-50.
  - 38) 李淞 (2001). 漢代人物雕刻藝術.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p. 42; 孫機. 앞의 책, p. 189.